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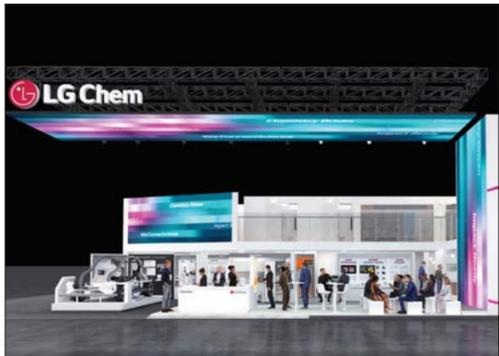
K-화학기업, 친환경·혁신 소재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

K 2025

LG화학 65여종 주력 제품 전시
친환경 패키징 '유니커블' 소개

롯데케미칼 반도체·모빌리티 등
고부가 소재·혁신 기술 제시

SK케미칼 70여종 상용제품 출품
자동차 재활용 사례 최초 공개



독일 K2025에 참가한 LG화학의 전시부스 조감도. /LG화학



롯데케미칼 부스 조감도. /롯데케미칼



SK케미칼 부스 조감도. /SK케미칼

국내 대표 화학기업들이 유럽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 'K 2025'에 참가해 친환경·혁신 소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롯데케미칼, SK케미칼은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K 2025'에 참가한다. 3년 주기로 열리는 K 전시회는 미국 NPE (National Plastics Exposition), 중국 차이나플라스(ChinaPlas)와 함께 세계 3대 화학산업 전시회로 꼽힌다. 올해 전시는 '플라스틱의 힘! 그린(Green), 스마트(Smart), 책임(Responsible)'을 주제로 61개국 30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LG화학은 '화학이 이끄는 변화, 세

상을 움직이는 힘(CHEMISTRY DRIVEN. Impact Ready)'을 테마로 286㎡(약 87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65여 종의 주력 제품을 전시한다. 모빌리티 존에서는 고광택·고내열 합성수지(ASA/ABS)를 적용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 중인 라디에이터 그릴과 리어램프가 전시된다. 초고중합도 폴리염화비닐(PVC)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전기차 배터리팩용 열폭주 지연 소재 등도 선보이며 시장 대응 역량을 강조한다. 리빙 존에서는 무광소재(ABS)를 활용한 가전제품, 패키징 존에서는 친환경 패키징 솔루션 '유니커블(UNIQUABLE™)'을 소개한다. 또 탄소나노튜브(CNT), 고성능 바인더, 에어로

젤 '넥슬라(Nexula™)' 등 차세대 소재를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선다.

롯데케미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롯데케미칼의 소재 솔루션'을 주제로 고기능성 스페셜티 소재와 리사이클 소재 브랜드 'ECOSEED', 배터리 4대 핵심 소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원료 등을 전시한다. 모빌리티 존에서는 경량화 소재와 유럽연합(EU) 폐차 규제(ELV)에 부합하는 리사이클 소재를, 에코시드 존에서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리사이클 제품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롯데케미칼은 스페셜티 존,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존, 그린 스페셜티

마티리얼즈 존을 운영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친 솔루션을 선보인다. 가전과 패키징을 비롯해 의료, 반도체·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전방산업 전반에서 적용 가능한 고부가 소재와 혁신 기술을 제시해 글로벌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SK케미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존하는 솔루션'을 주제로 내걸고 70여 종의 상용화 제품을 출품한다. 리사이클 존에서는 '스카이펫(SKYPET) CR', '에코트리아 클라로(ECOTRIAC LARO)'를 비롯한 순환재활용 소재와 함께 화장품, 자동차, 식음료, 패션 완제품을 전시한다. 특히 현대차 아이오닉5에 탑재된 스카이펫 CR 헤드라이너, 오

스트리아 듀몬트와 공동 개발한 차량 매트 등 자동차 재활용 사례를 처음 공개한다. 바이오 존에서는 바이오매스 함유 코폴리에스터 '에코젠(ECOZEN)'과 100% 바이오 폴리올 '에코트리온(ECOTRION)'을 활용한 생활용품·소재 제품을 선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주요 화학기업들은 K 2025에서 ESG 경영 기조에 부합하는 혁신 소재를 앞세워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며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바이오 기반 소재 등 차별화된 솔루션이 글로벌 고객과의 협업 확대와 미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신형 캐딜락 ‘슈퍼크루즈’ 도입… 새로운 운전경험 제공”

한국GM 간담회

국내 정밀지도 구축에 100억 투자
핸즈프리 주행보조 기술 공개 예정

“출퇴근 왕복 100km 넘는 구간을 주행해도 피로감이 평소 절반수준이고 차량이 저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라’는 느낌을 받았다.”

윤명옥 한국GM 커뮤니케이션 총괄 전무가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진행된 'GM 슈퍼크루즈 기자간담회' 제너럴모터스(GM)의 최첨단 주행 기술 '슈퍼크루즈'를 한 달여간 시범 주행을 진행한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북미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슈퍼크루즈가 도입되는 국가로, 올해 연말 새롭게 출시되는 캐딜락 신차에 탑재된다. 특히 핸즈프리(Hands-free) 주행 보조 기술이 국내에 처음 공



윤명옥 GM 한국사업장 최고마케팅책임자 겸 커뮤니케이션 총괄 전무(왼쪽부터), 채명신 GM 한국사업장 디지털 비즈니스 총괄 상무, 하승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기술개발부 부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진행된 'GM 슈퍼크루즈 기자간담회'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GM

개될 예정이다.

이날 윤 전무는 “시범 주행을 통해 국내 도로에서 슈퍼크루즈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며 “과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처음 경험했을 때의 짜릿함을 넘어서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빌리티 기술이 사람

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직접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슈퍼크루즈는 GM 미래 모빌리티를 실현하는 핵심 기술로 라이다(LiDAR) 기반의 정밀 지도, 카메라, 레이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첨단 주행 기술이다. 국내에 도입

된 첫 핸드프리 기술이다. 또 자동 차선 변경과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 차별화 된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GM은 국내 슈퍼크루즈 출시를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자해 2만3000km 규모의 정밀지도를 구축하고 한국 도로환경에 맞게 최적화·현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모든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슈퍼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한국 내 전용 맵 OTA 서버를 운영해 지도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도로 정보를 반영한다. 고객은 전용 사용자 가이드와 튜토리얼을 통해 손쉽게 슈퍼크루즈를 사용할 수 있으며 GM 고객 서비스 채널을 통해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GM은 올해 캐딜락을 시작으로 다른 브랜드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앞줄 왼쪽부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국민통합위 중소기업 정책 발굴 맞손

중소 인식개선 캠페인 등 협력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김기문 회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행사 개최 ▲정부 부처·유관기관에 정책 제안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선 '모두의 성장 위원회(가칭)' 설립과 중소기업 혁신방안, 규제배심원제 도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우리 사회는 0.1%의 대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66.3%를 차지하는 대기업 중심 생태계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에서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신설과 온라인플랫폼 제정 등 중소기업에 요구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김승호 기자

한성숙 장관 “중기부 산하 기관 정보화시스템 전수 조사”

취임 이후 첫 정책협의회 개최
국정자원 화재 후속 대응 등 논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모든 역할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이행과 수요자 중심의 업무 혁신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장이 자리했다.

한 장관은 “최근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전담 2차관이 신설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기부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

며 “공공기관에서도 더 큰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정자원 화재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정보화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 실시 계획도 발표했다.

한 장관은 “매년 110만개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한다. 중기부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1시간

은 수요자의 110만 시간”이라며 “지원사업 정보·신청 창구를 하나로 모으고 신청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자”며 인공지능(AI) 기반의 효율적 심사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관별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국가 단위 할인축제’ 협력 사항을 공유했다.

한 장관은 “국정감사는 중기부와 각 기관의 성과와 책임을 국민에게 검증받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